

## 세월호 희생자 아픔과 함께한 2014 연등회

추모와 애도의 물결 도심에 흐르다



불기 2558(2014)년 연등회는 4월 26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분위기로 막이 올랐다. '무사귀환 극락왕생'이라고 적힌 노란색 추모 리본을 가슴에 단 참가자들은 추모와 참회, 발원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스님은 "피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추모의 염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연등행렬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색 추모 장엄등,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적색 장엄등을 앞세우고 300여 명의 스님들이 선두를 이끌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 동대부속고등학교와 부속여고 학생들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뒤를 따랐다. '세월호 사고 아픔을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장엄등이 지나가자 연도의 불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실종자 생환을 기원했다.

오후 9시부터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기원의 장'이 봉행되었다. 아미타불 정근에 이어 찬불가 '고운님 잘가소서', '빛으로 돌아오소서'를 합창할 때는 많은 불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종각사거리 앞에는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 리본이 물결을 이루었고 지나던 시민들도 메시지를 적어 리본을 묶었다.

연등회 이틀째인 4월 27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에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다. <떡거리마당> <전통마당> <나눔마당> <템플&힐링마당> <국제불교> <나눔 NGO 마당> 등 6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는 화려함과 흥겨움 대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주

를 이뤘고 전래놀이마당 부스에서는 소원지 매달기 코너를 마련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우정국로 중앙엔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고 '극락왕생'과 '무사귀환'이라고 적은 대형 풍선을 띄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내외국인 탐방객들은 노란 리본에 위로와 격려의 구절을 적어 진심을 담아 추모했다. 전통문화마당을 둘러 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도 '극락왕생 발원'과 '당신들을 기다리겠다' 등의 글귀를 적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추모분위기 속에서도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한 외국인 연등만들기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예년보다 많은 400명의 외국인들이 사전 신청하는 등 참여 요청이 쇄도해 오전과 오후



후로 나뉘어 진행된 연등만들기에는 연인과 가족 단위로 찾아온 외국인들이 정성껏 연등을 만들고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즐거워했다.

## 국제교류위원회,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 현황과 문제, 대안' 포럼 개최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4월 11일 서울 화계사에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외사찰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부장 송묵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국제선센터 천조스님, 국제포교사 권영구 회장 등을 비롯하여 국제교류위원 8명과 사회부 권대식 국제팀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1부는 2013년 종무 보고와 함께 올해



국제팀 종무 계획을 논의하였고, 2부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스님의 발제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현안과 문제, 대안"에 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현재 총무부 등록 해외사찰 50개, 해외 활동 스님 138명 등 갈수록 해외사찰과 해외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해외사찰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범스님은 △해외사찰 설립 방식에 따른 한계 △종단등록 및 주지 인사제도 미비 △예산 미비 및 장기전략 부재 △인력파견시스템 부재 등 해외사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해외사찰은 대부분 개인적 포교 원력으로 창건돼 사찰의 목적 및 지향점이 불자를 위한 포교 및 사세의 확장이라는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또 종단등록 사찰 50곳 가운데 15개 사찰 이상이 폐사 혹은 사찰 정보가 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 및 장기적인 해외사찰 전략의 부재로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시설과 인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외사찰 현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범스님은 국제업무 협의 체계 상설화, 해외특별교구법 개정, 국제부 신설 및 국내 해외특별교구 지원사찰 설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특히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해외특별교구법은 대륙별로 많은 수의 특별교구 설립이 전제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교구가 설립될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구 설립을 진행해 왔다."며 "해외사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사찰 운영주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민용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이사는 "해외에서 한국 불교 현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먼저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사찰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재가 신도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조계종 외국인스님 정기 연수 개최

## 소통을 통해 도움과 참여의 가능성 모색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4월 11일(금)~12(토) 1박2일에 걸쳐 경주 일원에서 “2014년 조계종 외국인스님 연수”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연수에

는 국내 거주 62명 스님 중 54명(비구 15명, 비구니 5명, 사미 31명, 사미니 3명)이 참여했다.

1부 “선배스님에게 듣는다”에서 인도출신의 연등국제선원 주지 혜달스님, 미국

출신의 한마음선원 출판편집부장 청고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자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선배 스님들은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자로서 정신적 체험이 필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찰 의례인 염불이나 포교를 위한 언어와 생활양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스님들은 의료보험과 학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호소했다.

2부 2014년 종단 주요사업 안내에서는 외국인 스님들로 인력풀을 구성, 종단의 외국어 자료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많은 스님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 후 스님들은 천년고도이자 불교 유적의 보고인 경주의 석굴암과 분황사, 황룡사지 등을 순례하고 국립경주박물관

과 안압지, 첨성대의 야경을 관람하는 등 한국불교와 문화를 체험했다. 외국인스님들은 한국의 사찰에서 느끼는 것과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다고 감동을 토로했다.

교육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조계종 외국인스님 연수는 조계종 소속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소속감의 고취는 물론 스님들 간의 유대와 한국불교의 세계 전법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며 매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시작되기 1달 전에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연수는 특히 가장 높은 참석율과 알찬 내용으로 종단과 외국인스님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교육원 [www.buddhism.or.kr](http://www.buddhism.or.kr)



## 교육원, ‘불교영어중급 1·2’ 발간 교리, 의례, 문화 등 현장성 강조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 불학연구소는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 스님들의 영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의 ‘불교영어초급 1·2’에 이어 새롭게 ‘불교영어중급 1·2’를 발간했다. 특히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재 각 장의 중요 어휘들을 모은 단어장과 원어민 MP3파일도 제작되어 학인스님들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영어중급 1·2’는 각 권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불교영어 중급 1’은 불교 일상 영어회화와 불교 교리와 수행, 사찰과 문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불교영어 중급 2’에는 천도재와 사찰의례, 한국불교의 고승들을 각각 다루고 있다. 특히 불교에서 사용하는 중요 개념어를 한글, 한문, 영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로 정리해 단어장에 수록했고 영어회화 및 영어단어를 원어민의

목소리로 녹음해 MP3 파일로 만들어 조계종 홈페이지 종무자료실에 올려 스님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영어중급 1·2’의 특징은 당장 사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문장을 만들고 이를 연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찰 안내부터 템플스테이, 전화 대화, 박물관 관람까지 상황 설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참선, 염불, 절 등 수행과 불교 미술, 불교 윤리, 경전 해설까지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구성했다.”며 “일부 훈선을 빚었던 불교관련 용어들의 영문표현이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 02-2011-1800

## 군산 동국사, ‘일제의 조선침탈사 기획전’

군산 동국사주지 종결스님이 일제강점기 민족정신 말살정책을 확인하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일제의 조선침탈사 기획전’을 사찰 내 침탈사료관에서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고 있다.

‘쓸쓸한 기억, 신사(神社)와 무단통치-조선 명당엔 신사가 있었다’란 주제로 3·1절 95주년을 기념한 이번 세 번째 기획전에서는 일제의 무단통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한 군사·신사·경찰 관련 유물과 문서 중에서 엄선된 10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에는 조선에 자리 잡았던 모든 일본 신사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대동아 전쟁 및 1920년대 경성 시가지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매일 상영하며, 독립 운동가들의 편지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다.

신사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神道)에서 신령을 모시는 곳 또는 신령을 부르는 곳으로 일본 내에는 9만 7천 개가 넘는 신사가 있으며, 1억 7천만 명의 신도 숭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걸쳐 지방의 명당터나 관공서, 교도소, 학교, 기

업체 등에는 1,062개의 신사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현재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자리)을 지었고, 부여에도 부여신궁을 건설하다 해방으로 중단됐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은 신사가 남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승신제(昇神祭·스스로 신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의식)를 통해 신사를 불태우거나 파괴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사는 등록문화재 71호(옛 소록도 경생원 신사)가 유일하다.

조선 침탈사 자료는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인 이치노헤 쇼고스님이 조선침략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동국사에 기증한 것과 동국사가 소장하고 있는 일제 자료 등 약 5천여 점이다. 동국사주지 종결스님은 “일본총리와 우익단체들의 위안부 및 독도 관련 망언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당시 참상과 침탈 자료들을 공개해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며 기획전 관람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의식을 새롭게 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 동국사 www.dongguksa.or.kr](http://www.dongguksa.or.kr)

**삼출한 기억, 신사(神社)와 무단통치**  
**조선명당엔 신사가 있었다**  
 2014. 3. 10 ~ 6. 30  
 동국사 침탈사료관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침탈사료관  
 관내 군산시 관평동 동국사길 150호, T. 063-442-5366 H. dongguksa.or.kr



# 아름다운동행, 필리핀 교육시설 복구 지원

## 아라우부대 - 파잉초등학교와 합의각서 체결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2차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1차 긴급구호 이후 현지 상황과 지역 조사를 통해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교육시설 복구 사업이다.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아름다운동행은 필리핀 팔로시에 위치한 파잉초등학교에서 태풍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9곳을 복구하기로 대한민국 합동지원단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파잉초등학교(교장 로레타 글라리자)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지원협약은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구호성금 총 5억원 중 작년 태풍 피해 직후 타클로반주에 2억4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남은 2억6천 여 만원을 타클로반주의 타나완, 톨로사, 팔로 지역 초등학교 9곳의 시설 복구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2차 지원은 오는 5월 파잉초등학교 복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8곳의 학교 재건작업을 9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로레타 글라리자 파잉초등학교장은 “태풍발생 이후 지난 4개월간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태풍으로 부모님과 집을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임시 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도 많다.”며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아름다운동행에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학교가 복구돼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원 아라우부대장은 “합의각서 체결은 아름다운동행과 아라우부대, 학교의 역할분담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핀 공병과 아라우부대가 협력해 학교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www.thenanum.org**

## 조계종복지재단, “국제구호 효율성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급”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스님)은 미래복지포럼을 개최, 국내·외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NGO단체 및 사회복지계의 방안을 알아보고, 실천현장 사례를 통해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긴급구호사업의 이해 및 실천현장의 적용사례’ 포럼에서 ‘한국의 긴급구호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외협력팀 부장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등록된 국내 개발 NGO는 18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불교관련 단체는 10여 곳에 해당되며 식량, 공중위생, 보건서비스, 피난처,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각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특히 “대형 재난사고가 증가한 만큼 참여 NGO도 늘어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활동 주체 간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NGO들의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이 확대된 만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역, 국제 수준의 협력과 파트너십 증진이 요구된다.”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통해 본 해외재난현장의 구호활동’을 주제로 발제한 조계종복지재단 김동훈 부장 역시 인도적 지원활동의 핵심으로 지역단체를 주체로 한 활동 및 활동 주체 간 네트워크를 꼽았다.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를 계기로 지진과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재건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계종 활동을 소개한 김 부장은 특히 “2010년 아이티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던 중 활동 주체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클러스터 미팅에 참석,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클러스터 미팅을 적극 활용해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태국 홍수, 2013년 필리핀 태풍 등에서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었다며 “조계종복지재단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향후 비(非)식량물자 지원 등 전문영역 개발과 불교계 개발NGO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개발, 상시적 대응을 위한 전문팀 구성 등의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핵심은 피해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이 재난발생시 지역 내 이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하고, 현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글 편집부**

## 아이유 대표 팬카페 - ‘러브유(LoveU)’, 지구촌공생회의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 후원

최근 들어 스타들의 팬심이 기부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유 대표 팬카페(네이버) ‘러브유(LoveU)’가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NGO 단체인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에 1,993,000원을 기부했다. 아이유 팬카페 러브유는 지난 2008년 9월 개설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기부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그 기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사)지구촌공생회 후원팀 신동화 간사는 “이번 아이유 팬클럽의 기부는 팬심으로 뭉친 에너지가 기부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된 좋은 사례이며 이번 기부를 통해 캄보디아 이웃들이 지뢰 없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유씨와 팬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30년간의 분쟁과 내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최소 600~700만개 폭탄이 아직까지 매설되어 있다.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은 (사)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대표: 아키라)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2012년에 열린 제 16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대상 평화부문 공동 수상을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된 월주스님과 어릴 적

잔혹한 크메르 루즈 군에 의해 지뢰 매설을 강요당했던 소년병 출신으로 지금은 5만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해 2010년 ‘CNN 올해의 영웅 10인’으로 선정된 아키라 씨의 만남은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1월, 캄보디아 내 지뢰제거 NGO 4개 기구 중 하나인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CSHD)를 찾은 월주스님은 CSHD와의 협약식을 통해 총 3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11월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아키라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지원금은 캄보디아 번디 미연제이주, 프레이 비헤아르주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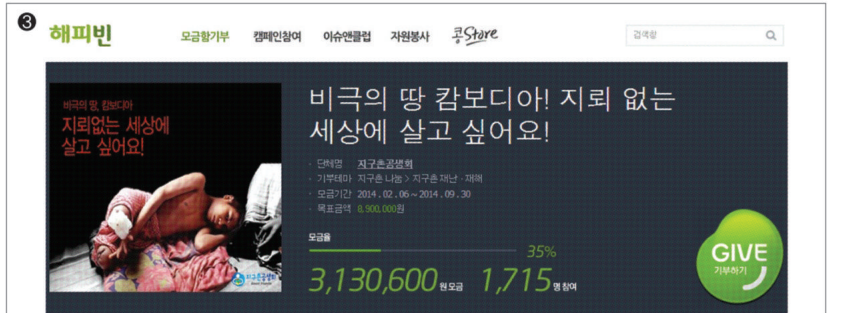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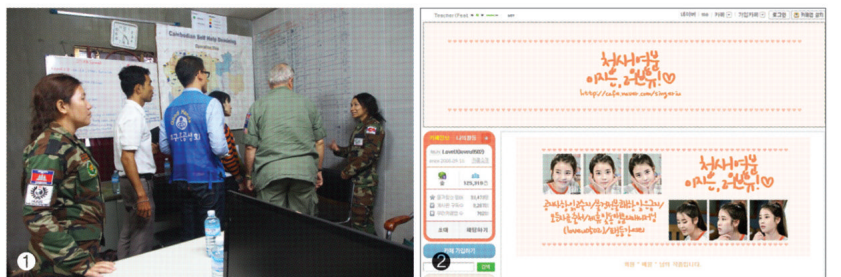
올해부터는 지구촌공생회의 ‘캄보디아 지뢰 없는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여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비극의 땅, 캄보디아: 지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목표금액 890만원을 목표로 네이버 해피빈 모금이 진행 중이며 후원계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후원문의\_ 02-3409-0303

후원계좌\_ 외환은행 630-005670-025

(사)지구촌공생회



1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지뢰제거연대 사무실을 찾은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지부 현지 직원들 2 해피빈 지뢰제거 아이유 팬 카페 3 해피빈 지뢰제거 캠페인 메인 화면



# 동유럽 포교의 중심 헝가리 원광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동유럽의 한국불교 포교와 세계화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헝가리 원광사가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 유럽 최초의 한국 전통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춰나가고 있다. 헝가리 원광사는 3월 29일 예산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국제전법단 단장이며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수덕사 총무 정범스님, 국제전법단 사무국장 보련스님과 한국인 신도, 그리고 이탈리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 온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 전통 방식의 삼보통청으로 시작된 행사는 참석자들의 석가모니 정근과 경과보고, 축사, 법문, 문화행사(헝가리 전통 음악과 한국 전통춤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덕사·화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십시일반 모은 3000만 원을 불사금으로 전달하며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뒤 한국불교를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청안스님은 “불사를 마무리 해 누구나 와서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비 8억2천5백만 원을 투입해 108㎡ 규모로 건립되는 원광사 대웅전은 한국에서 공수해 간 전통 기와를 비롯해 전통 한옥 건축양식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동유럽 헝가리에 한국문화의 표상인 목조와 기와, 황토로 지어진 전통사찰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헝가리인 스님에 의해 한국 간화선 수행 사찰이 세워지고 운영된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실천 방향에 한 예를 제시한다.

헝가리 카르파티아 산맥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원광사는 송산스님의 제자 청안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2004년부터 사찰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2005년 토지를 매입했다. 2006년에는 매입한 부지에 자리하고 있던 가축용 폐사를 임시법당으로 개조해 불사와 기도, 수행 정진을 병행했다. 한편 전통적인 한국 사



찰 양식의 선방 건설에 착공, 2010년 4월 설정 큰스님을 모시고 선방 개원식을 가졌으며 이후 대웅전과 요사채 건립을 추진해 왔다. 원광사는 또한 도심포교를 위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보광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글\_ 국제전법단

## 한미문화예술재단, 미국의 중심에 한국을 심는다 문화교육센터 건립, 아리 아리랑 축전 개최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워싱턴 한미문화교육센터’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에 들어설 한미문화교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했다. 장운열 재단 기획이사는 5천 년 역사에 기초한 한국 전통문화와 정신을 교육하고 한국의 우수한 예술인과 젊은 예술인에게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약 30분 떨어진 메릴랜드주 월도프에 부지 3,000평과 부속 건물 3동을 확보하고,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갤러리와 공연장, 예술인들의 작업실, 게스트 하우스 및 강의실 등으로 꾸며질 센터는 상설 문화예술공연장 및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메릴랜드주로부터 학교를 인가받아 2019년부터 학생을 모집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태미 이사장은 “센터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미 주류사회에 선보이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한국문화 교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5,000여만 원이 모였고, LED 생산기업인 케이에스비가 1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은 또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 소재 토마스 스톤 고등학교에서 제9회 아태문화민속 축전 ‘아리 아리랑’을 개최했다. 김경상 작가의 아리랑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석용 스님의 전통 지화 워크숍, 서경 스님 등 한국 국악인 5명의 공연 등과 함께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00명 비빔밥 및 한식 만들기, 서예와 종이 공예, 판화 찍기, 한지 꽃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문화축전 행사에 앞서 4월 22일 오후 2~5시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 캠퍼스와 25일 오전 9~11시 토마스 스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4시부터는 워싱턴DC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과 전시회, 워크숍 등을 가짐으로써 한국의 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문의 +1-703-598-5838 이태미 이사장

## 국제전법단 -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연등회 국제불교마당에서 사경 체험 진행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려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세월호 생존자 무사 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을 위한 대자대비로 정성으로 준비한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4월 2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수암스님)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스님)는 국제불교마당에서 사경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은색 종이에 형형색색으로 반야심경과 진언을 사경하거나 부처님이나 불교 문양 등을 그렸다. 각자의 작품을 인증 사진으로 찍어 현장에서 직접 인화해 나눠주자 소중한 기념품이라며 뿔 듯이 기뻐했다. 잠시나마 고요한 마음으로 불교를 접하며 추억도 만드는 시간이었다.

미국 플로리다 탬파에서 온 관광객 헤더(여, 28살)와 딜런(남, 29살)은 “웹사이트를 통해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전날 동국대에서도부터 조계사까지 연등 행렬을 하는 연등회에 참관했으며, 오늘 불

교문화마당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샘플을 보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연꽃 좌대를 그렸다. 캐나다에서 온 니콜(여, 25살)은 영어 선생님이요, 대학교 때부터 불교학 수업을 들었다며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고, 108배 절 수행 등 많은 것을 경험했다. 연등회 행사와 불교문화마당 행사를 통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재미있고 흥미로워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일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사경 체험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남겼으며, 서울 옥천암 주지 정경스님은 광명진언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글\_ 편집부

- ① 국제불교마당 내 운영 중인 사경 체험 부스
- ② 미국에서 온 관광객 헤더와 딜런
- ③ 사경한 작품들
- ④ 열심히 그리고 있는 소년





# 태고사, 많은 대중과 함께 한 현각스님 초청법회

## 옛 인연을 엮어서 새 인연으로

지난 2월 주지 취임법회에 참석한 원지행 보살님으로부터 북가주에 현각스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다. 태고사를 창건한 무량스님과 함께 송산스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에서 태고사의 얘기를 전해주어 태고사가 더욱 알려진 인연도 있으니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을 좋은 기회였다. 2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북가주에서 6시간 남짓 이동을 해서 법회 하루 전인 12일 태고사에 도착했다. 저녁 8시쯤 도착하여 늦은 저녁공양을 들고 태고사와의 인연의 보따리를 서서히 풀어 놓았다. 두어 번 방문한 태고사에서 현각스님은 두 번이나 쓰러져 힘들었다고 한다. 모하비 사막이 가까워져 먼지가 섞인 공기와 더운 공기가 몸에 무리였다. 무량스님과 인연을 설명할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태고사는 법사로서의 방문 보다는 지난 인연의 감사함과 무사함에 비중을 둔 방문이었다.

4월 13일 법회 날, 하루 전부터 몰려든 불자들은 물론이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온 신도들로 인해 10시가 넘으니 주차장에 차가 가득 들어찼다. 우선 천도재를 지내고 나서 대중공양을 준비하고, 현각스님 초청법회가 진행되었다. 청도 옥련암 주호스님의 집전으로 1부 사시불공, 2부 삼귀의와 반야심경 그리고 청법가로 이어졌다. 현각스님의 법문은 거침없었다.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나 찾기’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찾아야 하며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깨어 있는 정신으로 의식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나이 드신 불자님들은 한국어로 좋은 법문을 많이 접하고 있으나 교포 2, 3세대들은 영어로 부처님 말씀 접하기 어렵다는 것을 짚으면서 앞으로 영어로 법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상에 정좌한 현각 스님은 말 그대로 눈 푸른 납자의 모습이었다. 대선사 송산 스님의 법맥을 이어 받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의 선을 드날리고 있음이 위외에 드러났다. 문득 10여년 전 작고하신 송산 스님이 이 법회를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회가 끝나고 법당 뜰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평화의 종을 울리는 분들도 있었다. 모처럼 태고사에 활기가 넘쳐 흘렀다. 북적이는 도량에 행복의 기운이 가득했다. 법회 끝까지 집전한 주호스님, 법문을 청해 초청하신 원지행보살님, 공양담당 반야화보살님, 태고사 버스 담당 무량복 보살님 등등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분의 수고와 정성에 감사드린다. 먼 길을 달려와 좋은 법문으로 태고사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준 현각 스님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태고사는 매달 두 번째 주에 LA 다운타운 갤러리아 마켓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태고사 +1-661-822-7776

## 나눔과 봉사: 스리랑카 항공캠프 봉사활동 행복한 아이들, 내 삶 돌아보는 계기

방학의 끝자락인 2월 4일, 스리랑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방학 중 처음으로 대학생다운 방학을 보내는 여정이었기에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힘든 비행 후에 도착한 스리랑카. 따사로운 햇살과 통역을 담당해줄 자나카씨의 밝은 웃음이 우리를 맞이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위크라마바후 대학(Wickramabahu Central College)에서 처음으로 학생들과 마주했다. 많은 학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우리를 위해 전통춤도 선보여 주었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나와 같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지 모두 신기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다가오기를 두려워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은 수줍어했는데 그렇게 몇 가지 단어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어느새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항공 캠프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항공과 관련된 활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라 큰 흥미를 보였고 과학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다. 에어 로켓, 비행기, 풍등 등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계란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높이가 낮고 낙하산이 바람을 잘 타지 못해서 거의 깨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큰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학생들의 모습에 준비할 때의 고생이 씻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3일간의 항공 캠프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무사히 끝났다.

항공캠프 3일차이자 우리가 위크라마바후 대학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에는 스리랑카의 대표적 스포츠인 크리켓을 배웠다. 내가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떠나기 전, 우리는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미래를 기약하고 헤어졌다. 정말 짧은 3일이었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가 하면 학생 중 한 명이 우리를 그

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공이나 비행기와 관련된 경험은 처음이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항공캠프 재료들이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본보기로 캠프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한국-스리랑카문화센터(Korea Srilanka culture and social foundation)로 이동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항공캠프와 피구를 통해 우리와 가까워졌다. 나를 따르며 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오는 아이들과 하루밖에 같이 못 지낸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피구 공 한 개만으로도 웃음꽃이 가득 피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욕심도 질투도 없어 보였다. 또한, 저녁에는 한국-스리랑카문화센터 국장님과 서로 나눔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항공캠프 일정을 마치고 캔디와 콜롬보에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일행 중에 불교 신자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 아쉬웠다. 여행만큼이나 스리랑카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는 홈스테이였다. 스님의 도움으로 홈스테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스리랑카 음식, 전통의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또래의 현지인들과 생각을 나누며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던 좋은 인연들이 이번 여행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했다. 단연코 이번 항공캠프가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해외 활동보다 느끼는 것이 많고 배우는 것이 많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스리랑카를 다녀온 지 1달이 넘는 지금도 눈만 마주쳐도 웃음을 보이던 순수한 아이들의 눈동자가 눈에 선하다.

글 한국항공대학교 양미진



### 제4회 연수단 모집 안내

##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수암스님)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스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불교문화 체험과 국제 행사 경험을 통하여 타문화의 이해와 세계관을 심어주고, 미래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확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연수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연수단은 미 동·서부 권학 및 대학 탐방을 성공리 마쳤고, 매년 여름방학이던 미 동부 지역 청소년이 고국을 방문하여 한국 청소년과 교류하고 있다. 대표 정범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매년 연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앞날에 자비 광명이 비추어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많은 청소년이 참가하기를 당부했다.

일정은 8월 7일 ~ 8월 17일(10박11일)이며, 미 서부지역 우수 대학과 실리콘밸리, 그랜드캐니언 등 미 관광지와 함께 한국 사찰도 둘러볼 예정이다.

- 신청기간 : 6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dourim.net](http://www.dourim.net) 접속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메일(kbin8985@naver.com)이나 팩스(02-733-8985)로 전송
- 전화문의 : 070-7769-8985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영성을 가꾸는 일요담마학교

**콜롬보, 스리랑카** - 국민들의 불교 교육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두 종류의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하나는 초등과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피리베나학교로 승려가 주 대상이긴 하지만 때로는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하나가 바로 일요담마학교로 피리베나학교보다 훨씬 뒤인 1880년 종교혁명 당시에 시작된 것이다.

일요담마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데 승려나 재가자가 교사로서 봉사한다. 스리랑카의 모든 사찰은



일요담마학교를 개설하고 있으며 한 학교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어린이가 불교를 공부한다. 일요담마학교는 초창기에

는 최초의 미국인 불교도인 울콧트 대령이 세운 불교신지학협회(Buddhist Theosophical Society)가 교육을 담당했다가 불교청년회(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가 물려 받아 50년간 그 일을 맡아 왔고 이후 교육부 관할 하에 승려와 재가자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리베나학교와 일요담마학교 모두 다른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 기관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장래의 경력을 위한 학문적 기반

을 쌓고 일요담마학교에서는 도덕심을 함양하고 영적 지도를 받는다. 이외에도 명상, 사찰이나 양로원 청소 등과 같은 사회봉사, 순례, 탁발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와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종교적, 도덕적인 품성을 함양할 뿐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스리랑카의 일요담마학교는 학생들을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덕성을 갖춘 인간으로 길러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3. 20]

# 불교로 풀어나가는 사랑이야기, 영화 '네 번째 진리' 부처와 보살 도상 지침서

**할리우드, 미국** -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불행을 극복하고 바른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네 번째 진리(The Fourth Noble Truth)'를 직접 쓰고 감독한 게리 맥도널드의 말이다.

그의 최근 영화 '네 번째 진리'는 복잡한 세상살이와 함께 얽혀 있는 불교 러브스토리로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의 명상회



에서 수련을 하는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소노마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영화의 제목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 도성제(道聖諦)를 의미한다. 할리우드의 A급 배우 해리 햄린은 운전 중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명상을 수련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요가 강사인 레이첼(크리스틴 케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서서히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빠져드는 주인공 아론을 연기한다. 여주인공 레이첼은 아론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극복하도록 이끌면서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한다. 영화는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여덟 단계를 거치며 전개된다.

영화 홈페이지 [www.thefourthnobletruth.com](http://www.thefourthnobletruth.com)  
Buddhadharma [2014. 3. 25]

**카트만두, 네팔** - 부처와 보살의 도상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18세기의 기록으로 36개의 드로잉을 수록하고 있다. 티벳 숫자와 네팔의 원주민인 네와르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티벳에서 사용하기 위해 네팔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한 개념은 인도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인 굽타왕조 통치기간인 4세기~6세기경부터 발달해 왔으며 신체의 비율뿐만 아니라 치아의 수, 눈의 색깔, 머리카락의 방향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중요시되었다.

Buddhistartnews [2014. 3. 30]

# 불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 불교 센터 개원

**올더숏, 영국** - 영국 불교 커뮤니티센터(BCCUK)는 작년 7월 브리티시 텔레콤의 사교클럽으로 쓰이던 건물을 법회 등 불교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해 50만 파운드(한화 약 8억7천만원)의 경비를 들여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불상과 몇 군데 장식 부분들의 마지막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원래 금년 초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여름에 개원하게 되며 10월에는 달라이라마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티벳 불교 사회를 대표하는 BCCUK는 새로운 센터가 종교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약 4백 명의 회원들이 일인당 천 파운드(한화 약 175만원) 이상 출연한 기금으로 부엌, 화장실, 명상실, 스님 숙소 등을 확충했고 네팔에서 오게 될 두 스님들의 여행경비도 지원했다.



위생 및 안전 승인을 받게 되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준비된 간식들도 즐길 수 있다. 센터는 결혼식과 장례식, 의료 진료 등에는 기꺼이 장소를 제공하지만 파티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이 센터가 지역 주민과 네팔인 불교도 간의 화합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더숏의 불교사회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생겨났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사람들은 영적 추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Pete Bryan, Get Hampshire [2014. 4. 7]

#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봉사를 펼치는 불심사

**오클라호마시티, 미국** - 작고 오래된 교회 건물에서 시작해서 1673m<sup>2</sup> 넓이의 별관을 신축, 새롭게 사찰을 확장한 오클라호마의 불심사(Buddha Mind Monastery)가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건물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주지 지안 마오 쉬푸 스님에 따르면 곡선형의 사찰 외관은 주민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명상교실, 선불교 교실, 불교 교리 강의, 경전 공부, 예불과 의식 등 불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채식요리 강좌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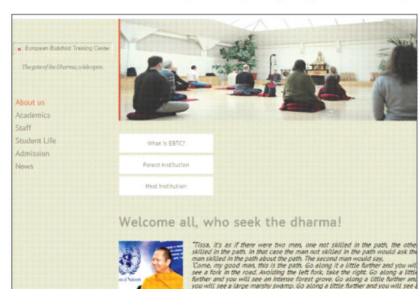


대단 중대선사 소속 불심사의 내부 구조는 중대선사의 네 가지 신조, 어른을 공경할 것, 어린이에게 친절할 것,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룰 것, 행동이 진실 될 것 등을 나타낸다. 불심사는 명상실, 도서관, 만남의 장소, 강의실 등을 갖추고 5명의 비구니가 상주하고 있다.

Buddhadharma [2014. 3. 26]

# 헝가리에 불교 석사과정 교육기관 생긴다

**부다페스트, 헝가리** - 태국 최대 불교대학교인 마하출롱콘라자위디알라야 대학교(MCU, Mahachulalongkomrajavidyalaya University)



가 다르마 게이트 불교대학(DGBC, Dharma Gate Buddhist College) 및 헝가리 정부와 손잡고 유럽 불교수련센터(EBTC, European Buddhist Training Center)를 창설했다. 2014년 9월 부다페스트에서 개원하며 불교학에 관한 문학석사과정(MA)을 개설해서 마하출롱콘라자위디알라야 대학이 인가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습은 영어로 진행된다. EBTC는 불교 수행과 불교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유럽 유일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EBTC 홈페이지 [www.ebtc.hu](http://www.ebtc.hu)



# 백년 대계 티벳 경전 영어 번역 프로젝트 '84,000'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100년에 걸쳐 23만1800페이지에 이르는 티벳 경전을 영어로 옮기는 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84,000'으로 명명된 거대한 작업은 2010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5개국 153명의 번역가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부탄 출신으로 티베트 불교 스승이면서 작가이고 또한 영화제작자인 종사르 쉐넌 린포체이다. 그가 제작한 영화 '더 컵(1999년)', '나그네와 마법사(2003)', '바라: 축복(2013)' 등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 불교 관련 도서를 여럿 출간하기도 한 그는 전 세계의 우수한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며 특히 옥스퍼드 대학과 베이징 대학에 불교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500여 경전과 1100개의 탄트라 경전, 인도와 티베트 선사들의 다양한 논서 등 티벳 경전의 번역은



가히 국제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티벳 경전을 번역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바로 불교의 광대한 문명과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고 종사르 린포체 말한다. 그는 경전의 번역은 25년, 논서의 번역은 100년을 예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경의 번역은 불교의 생존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티벳 경전의 5%, 중국 경전의 15%만이 현대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어원어민으로 히말라야지역 문화를

공부한 학자들과 번역가들도 대거 프로젝트 '84,000'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고전 티벳어, 불교 산스크리트어, 영어, 불교철학들의 전문가들이다. 편집위원회와 감수위원회는 종파를 초월해서 인도-히말라야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의 번역가와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에는 역사, 어법, 문화 등의 모든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같은 표현이 다

른 언어에서는 다른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학자와 번역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완성된 번역 자료는 <http://84000.co>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06국, 약 46,800명의 방문자들이 방문했으며 조회 수 220만을 기록하고 있다.

Yip Yoke Teng, The Star [2014. 3. 22]

## 스리랑카 여행자에게 부처 문신 금지

**런던, 영국** - 영국 외무부는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부처의 문신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지난 4월 21일 영국인인 나오미 미첼 콜먼(37세)이 팔에 새긴 부처의 문신 때문에 스리랑카 콜롬보의 반다라나이크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스리랑카 여행 경고 지침을 조정하면서 나왔다.

이 새로운 안내 지침은 불교의 이미지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스리랑카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여행자들은 이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상 바로 앞에서의 사진 촬영도 경고했다.

경찰에 의하면 콜먼은 오른 팔에 새긴 부처상이 공항 관리들의 눈에 띈 후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치안판사는 추방을 명했다.

스리랑카에서 부처의 문신 문제로 여행자들이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 영국인 앤서니 래트클리프는 팔의 부처 문신 때문에 추방되었고 2월에는 네덜란드인 여행자가 등에 커다란 부처 문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캔디에서 체포되어 벌금을 물고 풀



려났다. 2012년에는 프랑스인 세 명이 사찰의 부처상에 입 맞추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0년 미국의 래퍼 에이콘은 거의 나체의 여자가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 뮤직 비디오 때문에 스리랑카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2013년에만 약 10만 명 이상의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으며 영국은 인도 다음으로 스리랑카의 두 번째 교역국이다.

The Sunday Leader [2014. 4. 27]

##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는 방글라데시 청년불자들

**다카,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의 불교 청년들로 구성된 가야나록 종교교육회는 2008년부터 다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금요 담마 학교를 열어 불교 교재뿐만 아니라 학용품등을 제공해 왔다. 담마 학교의 목표는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영성을 고양하고 불교적 가치관을 배양하는 것이다. 근년에는 북벵골 빈민지역의 빈곤퇴치프로그램을 통해 옷, 책과 학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불자 청년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그 결과 마을도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청년들은 매년 따뜻한 옷, 담요, 필수품들을 제공한다. 또한 북벵골 지역의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몇몇 사찰에 담마 학교를 개설했다.

현재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을 정도로 북벵골 지역은 원래 불교가 융성한 곳이었으나 이슬람교의 오랜 지배 아래 불교도들이 빈곤해지면서 대부분 불교를 포기하



거나 잊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가야나록종교교육회가 중심이 되어 불교 단체들이 손을 잡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교육회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불교 퀴즈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는 상품과 책을 수여하기도 한다.

가야나록 종교교육회의 홈페이지는 "불교의 교육 문화기관으로 불교 어린이들의 종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북벵골의 가난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회활동을 펼친다."라고 밝히고 있다.

BD Dipananda,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3. 26]

## 승단 대표 의원 선출에 나선 승려들

**강푹, 시킴(인도)** - 히말라야 국가 시킴의 수백 명의 승려들이 승단을 대표하는 승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수도원을 나섰다. 이렇듯 의회 의석을 승단에 배정된 것은 인도에서도 유일한 경우로 승려에게 행정 참여권을 부여한 헌법 제 371(F)에 따른 것이다. 시킴은 1975년 인도에 병합되었다. 전



통적인 적갈색 옷을 입은 승려들은 투표소에 도착해서 다른 투표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

"이건 시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승려들이 투표로 다른 승려를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곳 승려들은 사회적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시에 매우 평화롭습니다."

승단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투표에는 오직 승려들만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수 있는 등록된 승려 수는 2904명이며 이중 여성은 45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명의 승려가 경합을 벌였다.

PTI [2014. 4. 12]

## 마하보디 사원 불교 새해 맞이 축제

**보드가야, 인도** - 4월 14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승려들이 마하보디 사원의 부처상에 물을 공양하며 불교의 전통적 새해를 축하했다.

"불교전통에서 사람들은 서로 물을 공양하며 축복을 나눕니다. 오늘 불교의 전통적인 새해를 기념하는 물 축제를 축하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 송크란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 바랍니다. 이 날은 또한 암베드카르 박사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 축제는 암베드카르 박사를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득도하신 마하보디 나무 아래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은 전 세계의 승



앙을 받고 있으며 200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NI [2014. 4. 15]



#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지난 4월 27일 보신각에서 124주년 노동절을 맞아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체들이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시작했다.

“마음 한 켠에는 세월호 희생자로 인한 아픔이, 다른 한 켠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마저 빼앗는 한국 정부로 인한 아픔이 자리한다.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사회를 맡은 소모뚜 이주인권활동가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등 돌린 또 다른 희생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특히 올해 개악된 퇴직금 수령제도를 규탄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며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지만 최근에는 퇴직금을 출국 후 받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시행했다.”며 “복장, 피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고, 각 사업장으로 돌아가 법 폐기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 화성 외국인보호소 법회 진행

외국인보호소는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미등록 상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국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여건으로 한 동안 중단되었던 법회가 마주협과 경기불교문화원의 노력으로 지난 4월 18일 다시 시작되었다. 진철희 원장의 집진으로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법문이 이어졌다. 특히 불교상담개발원 도현스님의 인례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음성 공양을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이다 보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보호외국인들이 각국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경전의 준비도 시급하다. 5월 2일 봉축법회를 갖고 매월 정례법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방글라데시 줌머족의 삶과 문화를 엿보다

지난 4월 5일 경기도 김포 양촌 다목적 문화체육관에서는 보이사비 축제 및 ‘치타공 산악지대 줌머족의 모국, 그리고 그 삶과 문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인 줌머족이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적인 삶의 가치관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글 재한줌머인연대



▲ (위)4월13일 구미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설날 ‘졸츠남’ (아래)4월27일 군포 ‘졸츠남’

## 캄보디아 설날 “졸츠남” 구미·군포에서 각각 열려

4월 13일 구미마하이주민센터(센터장 박재수)는 센터 내 잔디마당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캄보디아 설날 맞이 “졸츠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피아 스님의 의례를 시작으로 탁발의식, 캄보디아 전통음식 시식, 레크리에이션, 캄보디아 밴드 “Istar” 공연, 민속 공연 “Grand Star” 및 전통댄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 한

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도 있었다.

또한 4월 27일 경기도 군포 시민체육관에서는 경기도 인근의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모여 졸츠남을 치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와 있지만 캄보디아의 전통문화와 명절행사를 통해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국인들에게도 캄보디아의 명절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